

한우의 자존심 김인필 농가를 찾아서

서울지역본부 포천출장소장 조남욱

축산학을 전공한 아들과 함께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김인필 대표의 한창목장은 약 300여두의 규모로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김 대표는 25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북부한우조합의 대표이기도 하다.

남다른 열정으로

김 대표는 자립기반과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한우와 관련된 교육이나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열정과 노력에 대한 결과로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매년 시상하고 있는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 시상」에서 2008년도 한우부문 우수농가로 선정되어 작년 12월 축산물등급판정소 소장상을 받았다.

사람이 우선

한창목장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사업 초기부터 모든 소에 이표를 정확하게 부착하여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며, 경영 초기부터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친환경을 우선 순위에 두어 친환경농장으로 인증을 받았다. 또한, 한우사육에 있어 원가절감을 위한 지구책으로 대규모 지역에서 보다 저렴한 조사료의 원활한 공급을 받고 있다. 여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매우 혼란한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유일하게 방문한 목장이 바로 김 대표의 목장이었지만, 당시 일본에 있어 극비로 방문한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김대표는 우리의 한우산업은 혼신을 바쳐 최선을 다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2008년도 등급판정 결과내역

(단위 : 두)

구분	1**	1*	1	2	3	계
A	8	-	1	-	-	9
B	15	8	-	-	-	23
C	10	5	2	1	-	18
계	33	13	3	1	-	50

육질등급비율

